

2018KUCA 공동 전시기획자 정성태 & 엘리스와의 대담

사진전문지 포토닷은 한국사진가의 세계화 프로그램의 목적으로 지난 6월 14일부터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는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작가 115명, 400여 작품이 출품된, 양국 현대예술의 현주소를 알리는 전시회가 열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에 있는 예술공간 Akt에서 열린 KUCA 2018(Korea and Ukraine Contemporary Art Exhibition) 한 우크라이나 현대예술전인 <Exposure>는 KUCA위원회(Akt와 GGOODA)를 중심으로 한국의 포토닷과 우크라이나의 예술공간 Akt에서 공동주관한 전시로 한국에서는 30명의 사진가가 참여했고 우크라이나에서는 현대 예술가 85명이 참가해 양국의 동시대 예술지평을 넓히고 문화교류를 다졌다.

이번 전시에 공동 기획자인 한국의 정성태 큐레이터와 우크라이나의 엘리스 큐레이터와의 양국의 예술문화의 교류 발전과 이번 전시의 성과에 관해 대담을 나눴고 그 내용을 포토닷이 정리했다.





정성태(아래 정)_ 이번 2018KUCA 프로그램이 성사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한국 독자를 위해 엘리스 자신의 소개와 2018KUCA 프로그램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엘리스_ 제 이름은 Alice Yakubowych 이고 나는 Art Space AKT의 창립자이자 큐레이터입니다. AKT는 여러 분야에서 실험과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 문화 센터입니다. 이 전시 공간은 주로 우크라이나 현대미술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이 예술 공간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에 위치하고 예전에는 실크 공장이었습니다. 면적은 대략 39,000 제곱 피트의 큰 건물입니다.

우리는 지역 사회 프로그램 시설, 사진작가, 화가, 조각가들의 보금자리인 유리로 된 작업 공간 즉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개장한 이후 AKT는 90,000여 명이 넘는 방문객을 맞이했습니다. KUCA2018 '노출' 전시회는 2018년 예술 공간 AKT의 첫 번째 전시회였습니다. 전시 '노출'은 우리가 서로 간에 갖는 심리적 영향입니다. 그것은 현대 세대에 소비에트 교육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KUCA2018)에는 115명의 예술가들(우크라이나 85명, 한국 30명)과 40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한 규모가 있는 전시였습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와 한국의 젊은 예술을 혼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_ 이번 전시 타이틀이 <노출>이다. <노출>의 의미는 무엇인가?

엘리스_ '무언가를 하는 것'과 '무엇을 할 것인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색인은 같을 수 있지만, 태도와 행동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술가들은 작품을 통해 심연에 위치 한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작품의 일관된 방향은 자신을 드러내는 과정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맥락에 이번 전시의 주제인 '노출'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정_ 이번 한국 측 참여작가는 대부분 신진작가나 비전업 작가로 구성됐다.



우크라이나 작가들에 관해 소개와 한국 작가 중에서도 눈에 띄는 작가가 있겠지만 우크라이나를 대표하는 작가는 어떤 작가가 있었나?

엘리스_ 나는 주로 Y세대(1981~1991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와 Z세대(1991~2001년생)와 함께 소통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KT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체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주제를 느끼는지 현주소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진작가뿐만 아니라 설치, 디자인, 기술, 공연, 비디오 아트 등 현대미술 전반에 관해 관심이 있으며 이번 전시에는 내가 좋아하는 작품은 많지 않았지만, Jane Bondarenko의 '분홍색 괴물 PINK MONSTERS' 시리즈. 어린 시절의 두려움을 보여주는 일련의 사진 작업 등에 관심 두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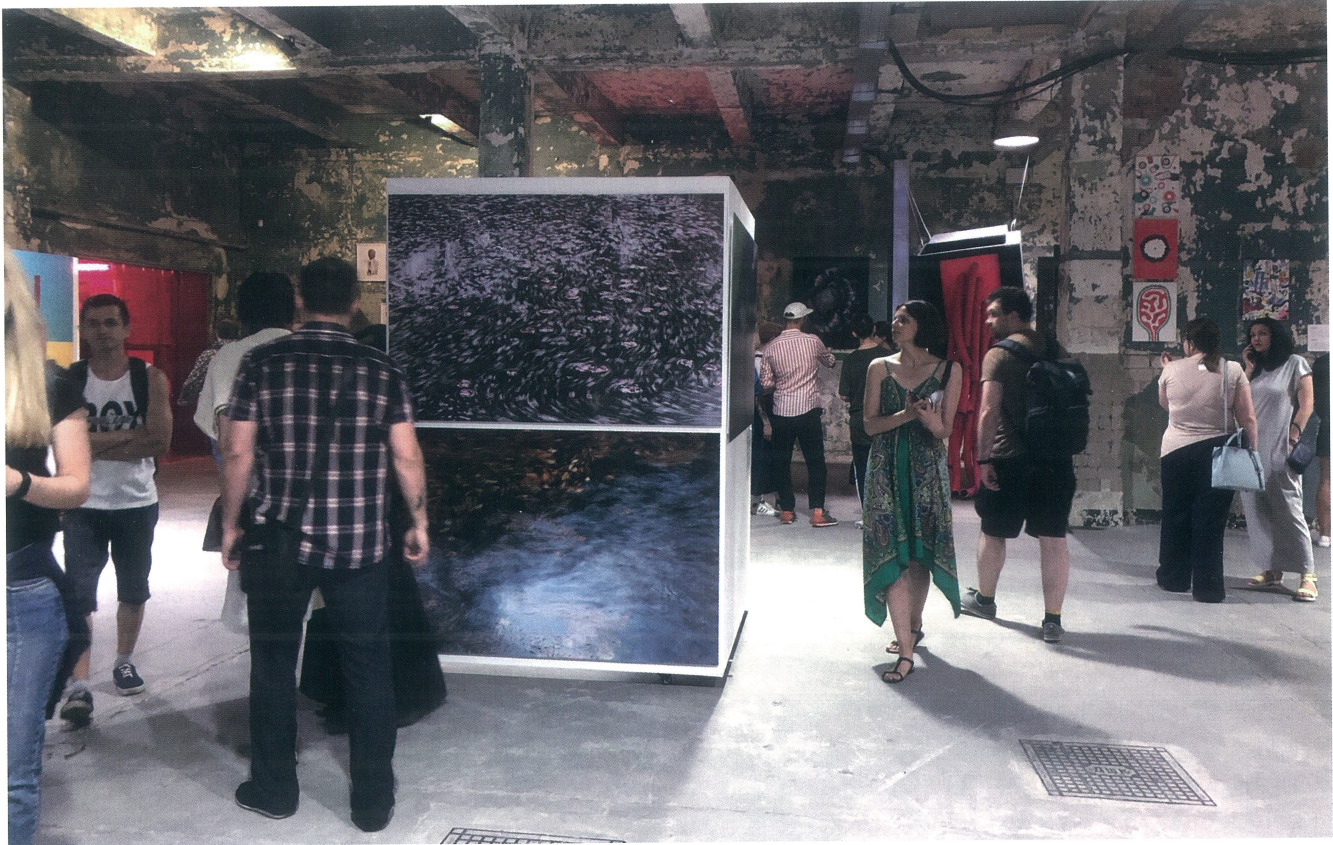
정_ 엘리스가 본 한국 작가는 어떠했나?

엘리스_ 나는 이번 전시에 참여한 한국 작가들의 작품이 전반적으로 완성도가 높아 좋았습니다. 매우 독특한 우추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한국에 가 본 적이 없으며, 한국의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 전시를 통해 한국의 예술가들이 세계를 보는 방법에서는 감동을 많이 주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국 작가들의 사진은 매우 강력하게 제작되었으며 특히 개념적 시각적 부분은 놀라웠습니다.

정_ 이번 행사에 한국 측 작가가 전시 현장에 오기 어려웠던 아쉬움이 있다.

앞으로 이 KUCA 프로그램이 어떻게 발전하기를 기대하나?

엘리스_ 협업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성태 작가와 내년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협력한다면 새로운 교육 커리큘럼을 시작할 것입니다. 미술 큐레이터에서 예술가, 예술 큐레이터에서 초보 큐레이터까지 일련의 코스입니다. 내년 여름에 유리 공간(레지던스 공간)에 젊고 재능있는 한국 예술가들에게 예술 레지던스를 제공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한국에서 우크라이나 예술가들의 전시회를 희망하며 한국 측과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Republic of Korea: Sungtae Jung / Artist, Curator Ukraine: Alice Yakubovych / Curator, Founder of Art Space AkT

Sungtae Jung_ Thank you for your effort for the 2018KUCA program. At first, please introduce you, Alice and the 2018KUCA program for Korean readers.

Alice_ My name is Alice Yakubovych. I'm a founder and the curator in the Art Space AkT.

AkT is a non-profit cultural center dedicated to experimentation and production across disciplines. This exhibition space was created for mostly Ukrainian contemporary art.

The 39 000-square-foot building based at the former silk factory in Kyiv. We have a community-programmed facility - full glass workspaces that are homes to the photographers, paint-

ers, sculptors. Since opening in June 2016, AkT has welcomed more than 90 000 visitors. Exposure exhibition is the first exhibition in 2018. Exposure is the psychological influence we have on one another. It reveals the influence of Soviet pedagogy on the modern generation. This exposition includes 400 multidisciplinary works by 115 artists (85 from Ukraine and 30 from Korea). It aims to mix Ukrainian and Korean young art.

Sungtae Jung_ The exhibition is called «Exposure». How would you interpret it? What does exposure mean to you?

Alice_ There are great differences between 'doing something'

and 'will do something' Although the index could be the same, attitude and behavior are different. Artists struggle to express the inner form of themselves located in their abyss through works. However, it is not an easy process and requires courage. Like this, it is clear that the consistent direction of all these works is a process of exposing the self. I would like to put the real meaning and value of 'exposure' which is the theme of this exhibition.

Sungtae Jung_ Korean photographers who have participated in this exhibition are mostly composed of new photographers or part-time photographers. Please introduce Ukrainian photographers.

Alice_ I'm mostly working with Generation Y (people born between 1981-1991) and Generation Z (born between 1991-2001). So, in AkT you can see how young people from whole Ukraine feel the topic. We have not photography only but installations, design, tech, performances, video-art. Few of my favorite artworks are PINK MONSTERS by Jane Bondarenko. The series of photos that shows her fears from childhood.

ODE TO JOY by Garry Efimov. FAILED PROJECT (it's a name) By Maksim Finogeev. 1,435 photos completely painted in black from the art residence where the photographer had a really bad experience but still could not delete it from his laptop's hard drive.

Sungtae Jung_ What did you, Alice, think about Korean photographers?

Alice_ I really do like the artworks from Korea. It seems like a very unique photography universe. I have never been to Korea, don't really know how your culture is growing up. But the way how Korean artists see the world impressed me a lot.

For example,

The photos by Korean students also are so powerfully built and have a surprisingly deep conceptual visual part.

Sungtae Jung_ It was sad that Korean photographers could not come to the exhibition. What do you expect that the KUCA could be developed in the future?

Alice_ Collaboration is my favorite way to create something new. So, I and artist Sungtae Jung have lots of plans for the next year.

Probably, we will start Education Curriculum.

The set of courses from art curators to artists and from art curators to novice curators. I hope we will provide some young talented Korean artists with art residences in our full glasses workspaces during the summer time next year. Also we are considering an exhibition of Ukrainian artists in Korea. ●